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올해 성장 전망, 6개월 전에 비해 2배 이상 상향 조정’
- CNBC: 바이든, 올해 10월까지의 1조2천억달러 지출 법안에 서명

[미국 금융]

- WSJ: 연준의 금리 수준 전망, 은행에 적절
- CNN Business: 골드만삭스, “미 증시 여전히 상승 잠재력 있다.”
- FinanceYahoo: 모건 스탠리, “기업 수익 줄면 증시 랠리 끝난다”

[뉴욕시]

- Bloomberg: 뉴욕시 MTA, 3월 27일에 혼잡세 결정한다

[유가]

- CNBC: 유가 상승 ...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 탓
- FinanceYahoo: 휘발유 가격 갤런당 3.50달러 기록 ... 유가 상승 탓

[미중 경제]

- CNBC: 중국, 관용 컴퓨터에 Intel과 AMD 퇴출 위한 새로운 지침 마련

[자동차 보험]

- CNBC: 미국 자동차 보험료가 상승하는 이유는?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비즈니스 스쿨에 다양성 부족
- Bloomberg: FAA, 안전 사고 이후 유나이티드 새로운 노선 규제 검토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2024 Growth Outlook Goes From Gloom to Bloom in Six Months

‘미 올해 성장 전망, 6개월 전에 비해 2배 이상 상향 조정’

-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미 경제 성장을 6개월 전에 비해 훨씬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 성장이 소비 지출 및 성장을 진작시키면서 작년과 거의 비슷한 경제 활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 최근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성장은 2.2%로 예상되어 작년 9월 예상치 0.9%보다 두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 향후 12개월 내의 침체 가능성도 35%로 떨어져 지난 2022년 7월 이래 확률이 가장 낮았으며 지난해 9월의 55% 확률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Bloomberg 기사

CNBC: Biden signs \$1.2 trillion spending package for government funding until October**바이든, 올해 10월까지의 1조2천억달러 지출 법안에 서명**

- 그동안 회계 연도의 절반이 지났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1조 2천억달러의 지출 패키지에 서명했다. 올해 10월 1일까지 정부 지출 예산을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법안이 뒤늦게 최종적으로 승인된 것이다.
- 하원과 상원은 섣다운 시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법안을 바로 최근에 통과시켰었다.

CNBC 기사

[미국 금융]**WSJ: Fed Rate Outlook Looks Just Right for Banks****연준의 금리 수준 전망, 은행에 적절**

- 미 은행들은 금리와 관련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기를 바라고 있다. 금리가 급등하면 예금 금리의 급격한 재조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금리가 너무 낮아도 단기 및 변동 금리 자산으로부터의 이자 수익에 압박 받게 된다.
- 지난주 연준은 올해 3.25% 포인트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등 중간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장기 연방기금 금리에 대한 기대치도 2.5%에서 2.6%로 소폭 상승했다.
-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예금 가격 재조정과 자산 가치에 일부 부담을 받겠지만, 대출과 증권 수익의 근본적인 능력에 부담을 주는 초저금리로 돌아갈 가능성은 줄어든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WSJ 기사

CNN Business: Goldman Sachs analysts say there's still potential for more stock gains**골드만삭스, “미 증시 여전히 상승 잠재력 있다”**

- S&P 500 지수는 올해 1월 이래 10% 상승했고 지난주에 골드만삭스의 올해 말 목표치인 5,200을 돌파했다.
-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대형 기술주의 성장이 계속되면서 S&P 500 지수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15% 높은 6,000 수준으로 이끌 예정이다.
- 골드만삭스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큰 상황에서 대형 기술, 미디어,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성장 기대와 밸류에이션은 예전의 버블 영역에서 활

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수익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CNN Business 기사

FinaceYahoo: Morgan Stanley's Wilson Says Stock Rally Will End If Profits Dip

모건 스탠리, “기업 수익 줄면 증시 랠리 끝난다”

- “올해 현재 신기록을 보이고 있는 미 증시들이, 만약 기업들의 어닝이 실망스러울 경우 주춤할 것이다.”
- 월가의 비관적인 전략가 2명은 이렇게 예상했다.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은 S&P 500 지수가 최고치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 수익 전망이 악화되면서 우려를 보이고 있다.
- 일례로 모건 스탠리의 Michael Wilson은 최근 5개월간의 증시 랠리는 펀더멘털의 개선보다는 유리한 금융 상황과 높은 벨류에이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JP모건의 Mislav Matejka도 “기업들의 어닝 가속화가 보이지 않을 경우 증시는 어려움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FinaceYahoo 기사

[뉴욕시]

Bloomberg: New York's MTA Poised to Vote on Congestion Pricing Fee 뉴욕시 MTA, 3월 27일에 혼잡세 결정한다

- 다음주에 뉴욕시 MTA는 뉴욕시 중심부(60스트리트 남부 지역)에 진입하는 혼잡세 요금을 투표로 결정한다.
- 운전자들은 빠르면 6월 중순부터 혼잡세를 지불하게 된다. MTA은 매년 걷어들이게 되는 혼잡세 10억불로 전철 보수, 전철 엘리베이터 추가 보급, 2 애브뉴 전철을 할렘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에 투입하게 된다.
- 이미 제안된 요금 체계에 따르면 이지 패스 운전자들의 경우 성수기 기간에 승용차는 15불, 트럭은 24불로 알려졌다.

Bloomberg 기사

[유가]

CNBC: Oil prices rise as Ukraine strikes Russian refineries 유가 상승 ...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 탓

-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의 정유 시설을 공격하면서, 월요일 유가가 상승했다.

- 서부텍사스산유(WTI) 4월물은 38센트(0.47%) 상승한 배럴당 81.01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 5월물은 37센트(0.42%) 상승한 배럴당 85.79달러를 기록했다.
- 주말 동안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Samara시의 Kuibyshev 정유 시설에 화재가 발생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주요 정유 설비 중 하나가 공격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CNBC 기사

FinanceYahoo: Gas tops \$3.50 per gallon as oil prices rise 휘발유 가격 갤런당 3.50달러 기록 ... 유가 상승 탓

- 유가 상승, 재고 감소, 여름철 혼합 가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번 주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다. 이는 작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 AAA 데이터에 따르면, 금요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53달러로 1년 전에 비해 0.10달러 상승했다. 이는 작년 12월 말 이후 최초로 전년 대비 상승한 수치이다.
-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에서는 갤런당 4.94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0.14달러 높아진 것이다.

FinanceYahoo 기사

[미중 경제]

CNBC: China's new guidelines block Intel and AMD chips in government computers: FT 중국, 관용 컴퓨터에 Intel과 AMD 퇴출 위한 새로운 지침 마련

- 중국이 정부 컴퓨터 및 서버에서 미국의 프로세서를 퇴출시키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사실상 인텔과 AMD의 반도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고위 정부 기관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서와 운영 체제를 구매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 이는 중국이 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반도체 산업을 부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CNBC 기사

[자동차 보험]

CNBC: Why auto insurance rates are skyrocketing in the U.S. 미국 자동차 보험료가 상승하는 이유는?

- 자동차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중이다. Bankrate 에 따르면 2024년 미국 내 평균 자동차 종합 보험료는 2천5백43달러로 상승했다.
- 자동차 수리 기간이 장기화되고 렌탈 가격이 오르면서 이러한 가격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자동차 수리 비용도 점차 비싸지고 있다.
- J.D. Power의 보험 분야 수석 디렉터 Stephen Crewdson는 “지난 1년간 대부분의 보험사가 보험료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Business Schools Still Lag on Diversity, Despite Stated Goals**비즈니스 스쿨에 다양성 부족**

-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수백만 명의 시위대가 인종 정의를 위한 행진을 벌였다. 해당 사건 이후, 미국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인종 평등과 포용성을 위한 노력,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캠퍼스로 수용하기 위한 변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해 발빠른 대응을 보였다.
-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의 2023년 상위 26개 학교 중 22개 학교의 데이터에 따르면, 3년 후 학교의 MBA 프로그램에서 소수계 학생의 등록 비율이 낮은 수준임이 밝혀졌다. 2020년에 비해 높아진 소수계 학생의 비율을 기록한 학교는 6개에 불과했다.
- 지난 여름 대학 입학에서 소수집단 우대 정책을 금지하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흑인, 히스패닉, 아메리카 원주민 또는 태평양 섬 주민 등의 소수계 미국 학생들의 대학 등록이 어려워졌다.
- 미국 상위 25개 비즈니스 스쿨의 대부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해당 노력이 등록률에 반영되지 않은 모습이다.

WSJ 기사

Bloomberg: FAA Weighs Curbs on New United Routes After Safety Incidents**FAA, 안전 사고 이후 유나이티드 새로운 노선규제 검토**

- 미 연방항공국(FAA)이 일련의 안전 사고 이후, 유나이티드 항공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검토중이다. 신규 노선 추가 금지가 해당 조치에 포함된다.
- 관계자에 따르면 연방항공국이 최근 항공사 경영진과 임시 조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공사에게 가장 중요한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노선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새롭게 인도된 항공기로 승객을 비행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해당 방안은 사실상 미 최대 항공사 중 한 곳의 성장을 불특정 기간 동안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는 올해 초 보잉사 비행기 사고 이후 상업용 항공 안전에 대한 항공국의 감시가 강화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美연준, 노동시장 약화시 금리인하 가능성..."금융시장에는 호재"

"美 20개주에서 실업 증가...시급노동자 노동시간 감소도 우려" 해석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노동시장 약화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감내하더라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0일(이하 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예상하지 못한 노동시장 약화도 정책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24일 이같이 보도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러한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노동시장에 균열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